

특별 기고



김 훈 식

부산의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삼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미래 해양도시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를 비롯한 전 해의 해양자원이 있고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UN기념공원이 있다. 또 종합대학이 무려 5곳이 몰려있고 문헌 국제금융 단지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남구를 부

산의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성 싶다.

이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구를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민선 제7기 구의원과 3선에 성공한 구청장에게 '더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가자'는 부탁의 말을 전하고 싶다. 중앙정치나 지방 정치 할 것 없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주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 살기 좋은 남구라고 입소문으로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중국 고사아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생각이 난다. 어느 산길을 넘어가던 나그네가 날이 저물어 깊은 산골 외딴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어가기를 부탁하고 방에 들어가니 초라한 노인 한 명만 살고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더니 식구들은 모두 호랑이가 물어가고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말하여 준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노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이 성은 정치를 잘 해서 사람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기

노인 친화공동체 어떻게

가 싫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남구의 인구 30만 명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 인구 30만 명 이하의 나라도 여럿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30만 명에 미달되는 시, 군, 구는 수 없이 많다. 다만 사람살기가 좋

지 않아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남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잘 하리라 믿고 시대에 맞는 아주 색다른 사업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노인문제해결에 관한 사업이다. 노인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부산은 전국 7대도시 중 노인 비율이 14%에 근접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이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재앙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70세가 되어도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보다 이상 부양의 대상자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서는 주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면 고령화 사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

청소년비전센터로 세대간 소통

해서 노인과 모든 세대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남구 노인친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각 동마다 노인정이 있긴 하나 8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일부 노인들만 모여서 시간 보내는 장소로 전락되었다. 이러다 보니 65세 이상의 젊은 노인들은 머물 곳이 없어 이리저리 배회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필자가 주장하는 노인친화공동체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격상된 새로운 공동체로 전향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다.

남구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누며 친화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즉 '청소년 비전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고 다양한 세대들과도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친화 공동체와의 대화를 통해 노인과 청소년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방황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은 남구의 큰 일꾼들이 되고 지역을 지키는 미래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위의 두 사업은 예산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사업이 아니므로 꼭 실행해 금년 내로 간판을 걸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변화, 발전된 우리 남구 미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필가·전 부산YMCA이사장



■독자의 편지

이름 없는 남구의 홍보대사 '호뭇'

나는 얼마 전부터 남포동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일의 특성상 많은 손님들이 부산의 다양한 장소를 이야기하며, 어디로 가면 좋은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을 물어온다. 감전 문화마을의 인기가 대단하고 해운대, 광안리도 자주 언급된다.

그런데 며칠 전, 남자 손님 한 분이 "이기대를 가고 싶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내가 살고 있는 남구의 이기대를 '꼭' 짚어 묻는 그 손님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웃는 얼굴로 교통편을 설명해드렸더니, "스카이워크도 있다면서요?"라며 되물어 왔다.

부산에서 손꼽는 패지극박 가게 역시 자주 언급되는 남구의 명소 중 하나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터라, 허튼 소문만으로 그런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아니라 걸 알기에, 손님들에게도 자신 있게 "거기 정말 맛있어요"라며 자신감을 갖고 추천해 주었다.

일을 하다 보면 남구의 좋은 것들을 손님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주고 싶어진다. 부경대와 경성대 사이의 기본 좋은 산책로인 대학로를 말하고 싶고, 부경대 후문 쪽에 조용하지만 고집 있는 모양새로 곳곳에 자리 잡은 관창은 카페들도 알려주고 싶어진다.

한 동네에 애착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더 사랑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앞으로도 부산의 가볼만한 곳을 질문 받는다면, 다른 곳도 괜찮지만 남구도 한 번 오시라고, 숨은 장소들이 참 많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이니 말이다.

이우화(대연1동)

부단한 편지로 한자 국화마크 한글로 바꾸

저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지금은 병을 얻어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유년 시절에 일본인이 쓰고 있던 모자에 '國'자가 달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광복을 맞은 뒤 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되고 국화가 구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TV를 보다 국화의사당을 상징하는 마크가 일제 강점기 모자에 있던 마크와 똑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어쩔듯 마크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창이나 모임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국화마크가 일제 강점기 당시와 같으니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주 잊어버렸고 그 일은 어느새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모란처럼 수가 없어 우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 1차로 2004년 10월에 국화마크 변경 건의를 보냈고 얼마 뒤에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지만 그 뒤 아무런 소식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인 2009년 10월쯤 재차 의견서를 보냈으나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척 낙심해서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지난 5월 8일 신문에 국화기의 마크가 한글로 '국화'라고 바뀌는 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기뻐하고 힘이 솟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감사 서신을 보냈습니다. 6월 5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마크가 변경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뜻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덕일(대연동)



선용의 1000자 지혜

목숨을 구한 지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위급할 때면 무엇이든 잡고 살아나려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급하다고 아무거나 잡다가는 정말 곤경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럴수록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제나라 대신 전성자는 다른 대신들과의 세력다툼에 밀려 황금과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머리 좋은 부하 치이자피만 데리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가까운 연나라까지 가는데는 많은 관문을 지나야 했는데 그 때마다 치이자피의 지혜로 극복했다. 드디어 경계가 가장 엄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도 빠져나간 적이 없다는 관문인 땅에 도착했다. 전성자가 몹시 당황해하는 것을 본 치이자피가 '이사가 가는 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호숫가에 뱀 두 마리가 살았는데 호숫물이 말라 다른 뱀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가다가는 죽임을 당할거라 걱정이 되어 작은 뱀이 지혜를 짜냈죠. '내가 덩치 큰 너

의 뒤를 따라가면 보통 뱀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등에 업혀서로 꼬리를 물고 가면 우리의 묘한 행동에 하느님의 행차인 줄 알고 피해갈거야'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괜히 건드렸다가 횡액을 당할 거 같은 느낌에 그냥 지나쳤고 뱀은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저의 몸뚱이는 흥하게 생겼고 나라는 한 국가의 대신이나 임금님 같아 그대로 들어갔다가 산중팔구 의심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제가 주인이고 나라가 신하나 하인으로 꾸미고 가면 어느 큰 나라의 임금님과 신하로 생각할 것입니다. 신하로 보이는 나리가 임금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니 의심하지 않고 보내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관문을 통과하여 연나라로 갈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의 이치를 알고 잘 처리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총알 같은 119구급대에 감사

토요일 오후 집으로 전화 한통이 걸려와 웬 어린 아이가 답답하게 "성호 엄마세요? 성호가 다쳐서 119를 불렀어요"라며 자기네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놀이터로 뛰어가니 이미 상황은 끝났고 아이들은 119 구급차를 타고 간 뒤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애가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는 머리를 다쳤고 다른 아이는 이빨이 부러졌는데,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고 119 구급차가 응급같이 달려 왔었다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이들의 신속한 행동과 구급대의 활약으로 두 아이는 치료를 받아 큰 부상은 면했습니

다. 119 구급대를 활용하는 수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정도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홍보도 잘 돼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신고를 받자마자 119가 달려와 순찰을 취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오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김옥임(문현3동)

재개발지역 빈집 철거를

대연2지역 재개발지역은 대다수 주민이 타지로 이전해 공·폐가가 많아 범죄 발생이 우려됩니다. 관내 순찰을 강화해 비정규직이나 노숙인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빈 집에 대해서는 철

■기자수첩

웃음, 인생이란 빵에 바르는 잼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다. 곧 장마도 온다고 하니 하늘도 우거지상을 짓고 있다. 슬픔은 슬픔으로 달래야 하지만, 슬픔의 치유는 웃음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웃음은 슬픔까지 보듬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사람이 더 많다. 수많은 매스컴에서 웃으며 살아가자고 얘기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왜 웃으며 살아가지 못하는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 웃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반문한다. 그럼 과연 웃을 일이 없다고 계속 웃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고 말이다. 돌아오는 답은 특이하게도 그 래도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웃는 것이 잘 웃는 것일까?

첫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을 크게 벌려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하하' 하고 소리 내 웃어 본다. 이것이 바로 웃는 일의 기본이다. 둘째, 나 자신을 버리고 웃어보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위치가 이리대 어떻게 웃느냐'는 생각은 꼭 버려야한다. 셋째, 웃는 나를 내가 칭찬해 주어야한다. '나도 웃으며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라는 이야기이다. 넷째, 이렇게 웃음이 조금 연습되

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들어진 내 얼굴에 소리만 크게 내어줄 수 있다면 웃음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웃음은 인생이란 빵에 바르는 달콤한 잼이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식빵에 바르는 잼은 빵이 맛있으라고 바른다. 인생에 바르는 잼은 바로 웃음이라는 것이다. 유머 한 가지 해보면 웃어보아졌다.

서면 모 호텔앞 특강을 마치고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승강장 앞에서 있었다. 어느 슬하한 남자가 한 명이 택시를 잡아왔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자 불쾌하게 취기가 오른 승객이 대답했다. "아저씨, 샌프란시스코로 갑시다." 순간 택시기사는 황당했지만 유머를 배운 분 같았다. 그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손님 샌프란시스코로 가시려면 여기서 타시면 안 되고, 내리셔서 길 건너편에서 타셔야 합니다." 그러자 손님이 조용히 "아! 그런가요."라고 대답하며 길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본 필자는 웃으면서 그 '유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이것은 한가지의 유머이지만 웃음이 터지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웃음과 건강, 그리고 행복은 한 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을 나 자신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크게 웃으며, '오~ 하하하하하하~ ~'.

조상영 기자(조상영웃음연구소 대표)



취재 : 기사 양반, 미국 중 갑사다 택시기사 : 길 건너편에서 타셔야요

산행을 떠나요				
산다라 물 따라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청암산악회	9(수)	문경새재 과거길 부봉산	010-6778-3192
	아현산악회	16(수)	남원 둘레길 구룡계곡	010-4655-4370
	용호산악회	27(일)	청도 정국봉	010-2593-0361
	제일산악회	6(일)	산청 마곡담계곡	011-594-4192
	여명산악회	6(일)	지리산 뱀사골계곡	010-3554-4392
용호동	용신산악회	13(일)	충북 괴산 칠보산	011-498-3307
	다산산악회	6(일)	가평 금굴산	010-3870-2660
	금강산악회	6(일)	영덕 불갈산	010-3865-9051
	21C산악회	13(일)	지리산 칠성계곡	010-6266-9525
	청산산악회	6(일)	충북 괴산 군자산군산 신유도 휴가산행	010-8008-2087
문현동	함마음산악회	13(일)	함양 부전계곡 덕문봉	010-9324-3424
	녹색산악회	6(일)	밀양 능동산 계곡 산행	010-7223-2277
	문화산악회	27(일)	경북 울진 울곡	016-564-8892
	용마산악회	13(일)	경북 성주 무릉계곡	010-4433-8809
	문현산악회	27(일)	경북 성주 대천계곡	010-3595-7692
감만동	굴포별산악회	20(일)	청도 배너미굴	010-8287-1192
	돌기운산악회	27(일)	밀양 쇄점굴	010-2397-1133
	우남산악회	20(일)	남원 구룡계곡	010-7520-6666
	우남산악회	6(일)	경북 문경새재 조령산	010-3557-2847
	한솔산악회	13(일)	경남 하동 황장산	010-9620-2874
문현동	우암산악회	27(일)	문경 도장산	010-6578-0488
	문현산악회	20(일)	지리산 백운계곡	010-6706-1255
	월파리산악회	20(일)	무주 래프팅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가족모임 실시 안내

남구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듣고 가족상호간 정보공유 및 적절한 관리법 제공하기 위한 치매가족모임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자 : 관내 치매환자 가족
- 일 자 : 2014.07.16.(수), 08.13.(수), 09.17.(수) 09:30~12:00
- 내 용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요법 등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치매상담실 ☎607-6424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14년 6월 16일~2014년 6월 30일

지방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 : //etax.busan.go.kr 접속 전자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납부

(문의 : 세무2과 ☎607-4211~4214)